

**아다치구 다문화 공생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구민 의식
설문조사
보고서(개요판)**

2026 년 6 월

아다치구

목차

제 1 장 조사 개요	1
1 조사의 목적	1
2 조사 대상자	1
3 조사 시기	1
4 조사 방법	1
5 회수 현황	1
제 2 장 조사 결과의 요점	2
1. 외국인 조사	2
(1) 일본어와 관련한 곤란함	2
(2) 지역 활동 참여 의향	3
(3) 외국인 상담창구의 인지도	4
(4) 방재훈련의 인지도	5
(5) 대피소의 인지도	6
(6) 반상회의 인지도와 가입 여부	7
(7) 향후 거주 의향	8
2. 일본인 조사	9
(1) 외국인 거주에 대한 의식	9
(2) 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참여 의향	10
3. 외국인 조사와 일본인 조사의 비교	11
(1) 방재 대비	11
(2) 마찰 경험	12
(3) 지역 사회에서의 공생 의식	13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아다치구의 외국인 구민의 현재 상태와 다문화 공생에 관한 구민 전체의 의식을 파악하여 차기 ‘아다치구 다문화 공생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아울러 앞으로 구(區)의 다문화 공생에 관한 시책이나 활동을 추진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했다.

2 조사 대상자

(1) 외국인 구민

만 18 세 이상의 외국인 구민 3,000 명(‘2024 년도 아다치구 외국인 실태 조사’ 대상자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출) ※국적별, 거주 지역별 인구 비율을 감안하여 추출

(2) 일본인 구민

만 18 세 이상의 일본인 구민 2,000 명(무작위 추출)

(3) 추출 시기

양측 모두 2025 년 6 월 1 일 기준 아다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조사 시기

2025 년 9 월 30 일(화)부터 2025 년 10 월 17 일(금)까지

※우편 사정으로 인한 배송 지연을 고려하여 10 월 22 일(수) 도착분까지 접수했다.

4 조사 방법

(1)우편 배포·회수 및 인터넷 응답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외국인 조사의 경우 일본어(후리가나 병기)로 작성한 설문조사표를 영어, 중국어(간체자), 한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의 5 개 언어로 번역하고, 일본어판(후리가나 병기)과 대상자의 국적에 따른 언어판을 각 1 부씩 동봉하여 송부했다.

(3)인터넷 응답용 WEB 양식은 외국인 조사와 일본인 조사 모두 일본어판만 작성했다.

(4)회수율 향상을 위해 10 월 8 일(수)에 ‘감사 인사 겸 응답 요청’을 송부했다.

5 회수 현황

조사 대상	배포 인원	서면 응답	WEB 응답	합계	회수율
(1) 외국인 구민	3,000	557	432	989	33.0%
(2) 일본인 구민	2,000	526	460	986	49.3%

제 2 장 조사 결과의 요약

1. 외국인 조사

(1) 일본어와 관련한 곤란함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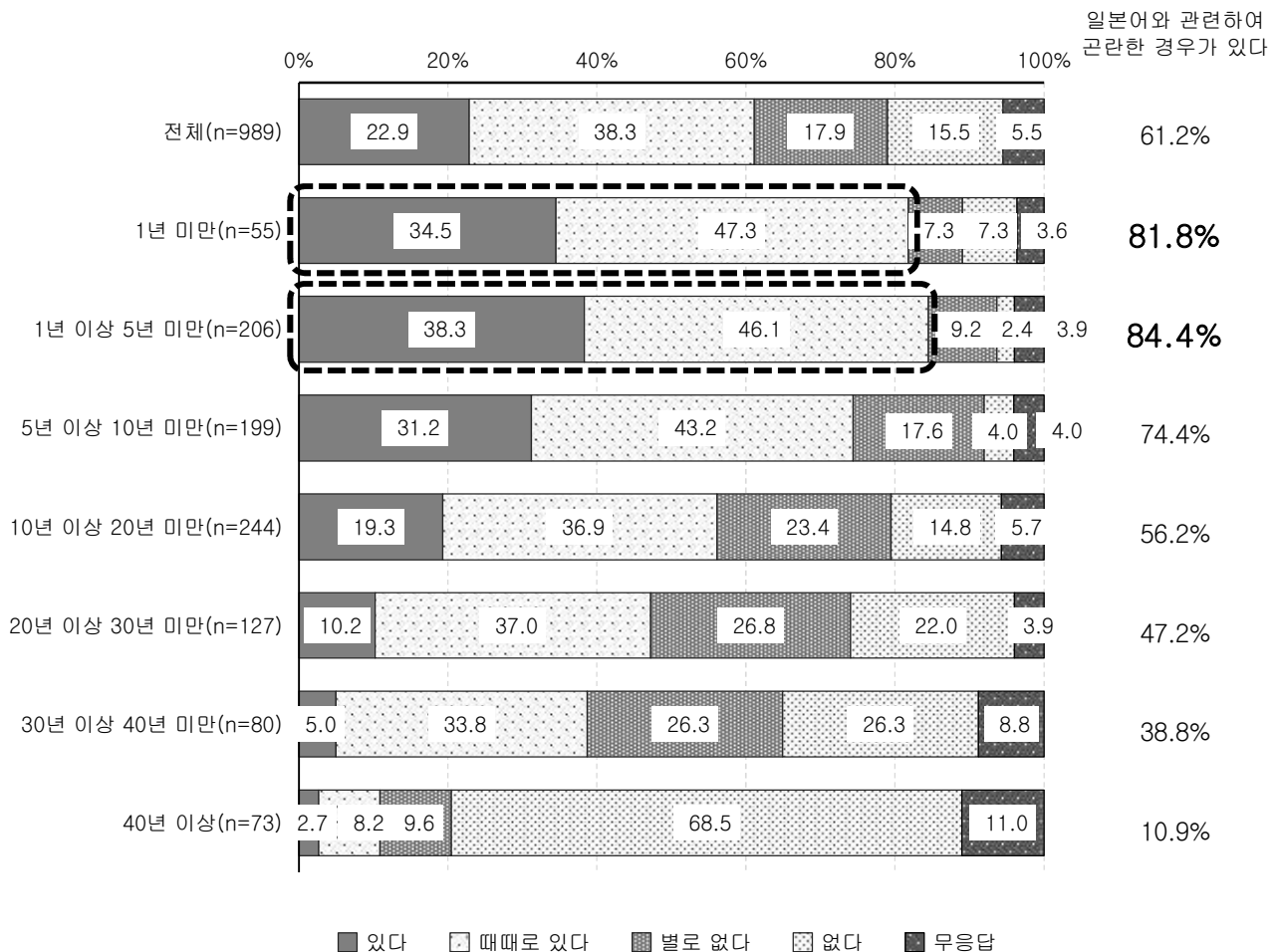
① 60%가 일본어와 관련하여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② 특히 일본 체류 연수가 5년 미만인 층에서 곤란함을 느끼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일본어와 관련한 곤란함에 대해 전체 외국인 중 ‘있다(‘있다’와 ‘때때로 있다’의 합계)’라고 응답한 비율은 61.2%였다.

일본 체류 연수별로 보면 일본어와 관련한 곤란함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체류 연수 5년 미만 층에서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체류 연수가 짧은 층이 일본어와 관련하여 곤란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와 관련하여 곤란함의 유무 【전체 및 체류 연수별】



(2) 지역 활동 참여 의향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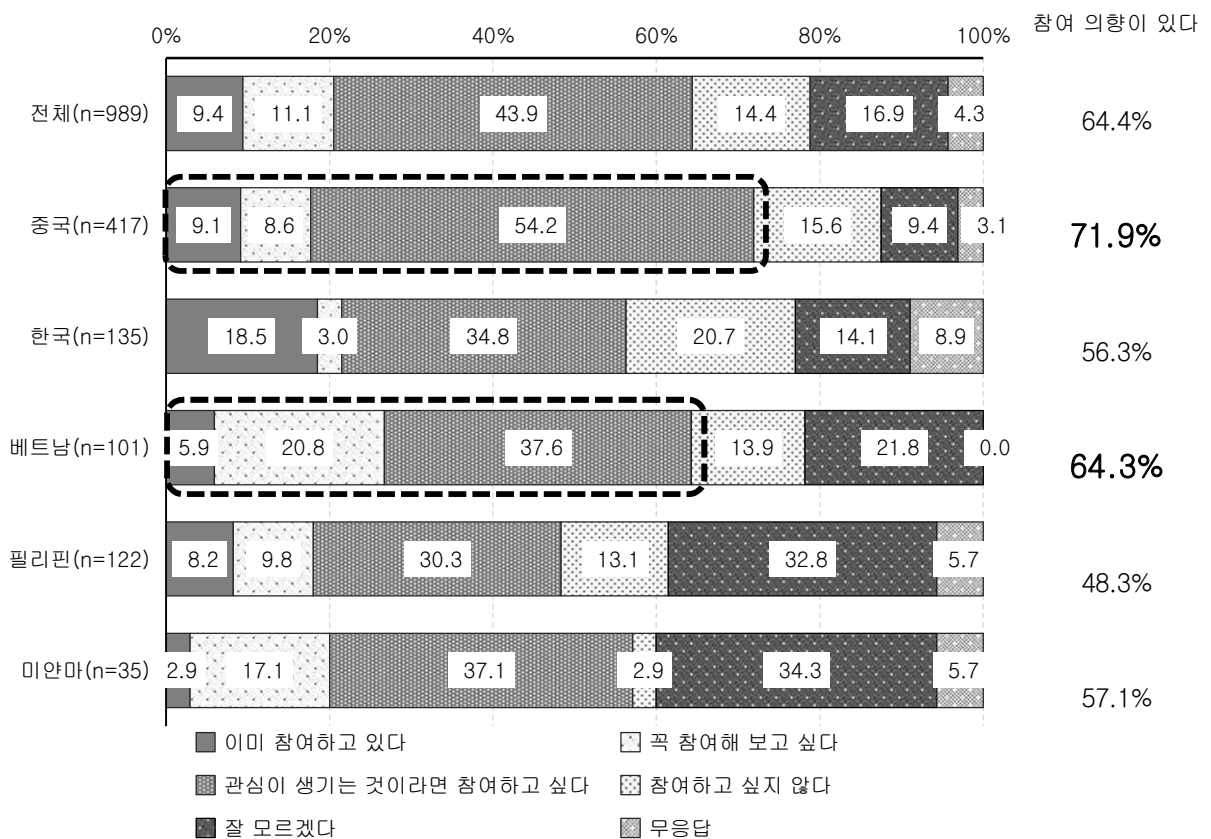
① 40%가 넘는 외국인이 ‘관심이 생기는 것이라면 참여하고 싶다’라고 응답했다.

② 특히 중국과 베트남 출신자의 참여 의향이 높았다.

지역 활동 참여 의향에 대해 전체 외국인 중 ‘관심이 생기는 것이라면 참여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다.

국적별로 보면 ‘참여 의향이 있다(‘이미 참여하고 있다’, ‘꼭 참여해 보고 싶다’, ‘관심이 생기는 것이라면 참여하고 싶다’의 합계)’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71.9%)과 베트남(64.3%)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 활동 참여 의향 【전체 및 국적별】



※‘전체’는 전체 응답자의 합계를 뜻한다.

※응답 수(n)가 30 미만인 항목은 게재를 생략했다.

(3) 외국인 상담창구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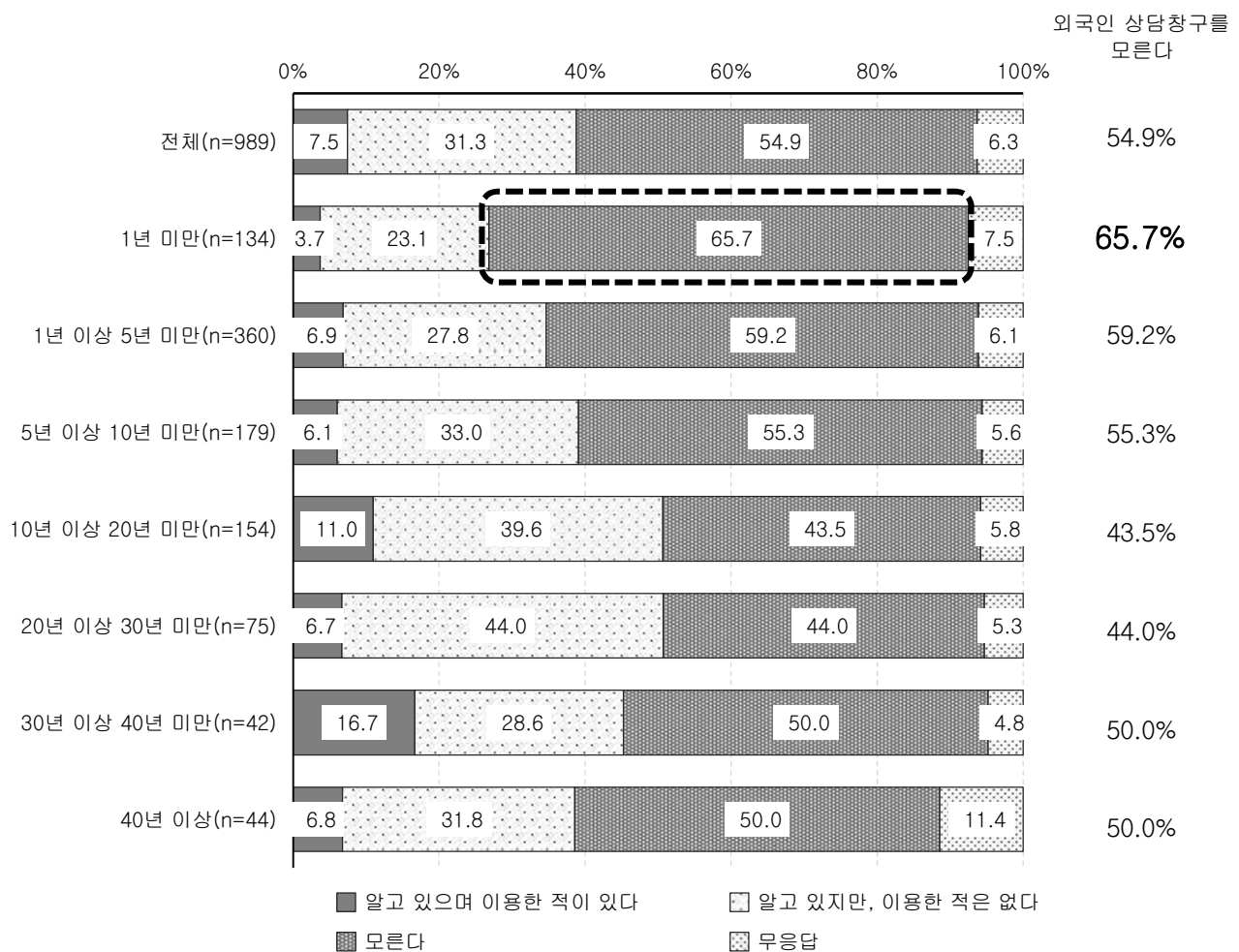
point

- ①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상담창구(※)를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 ② 구 내 거주 연수가 짧은 층일수록 외국인 상담창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외국인 상담창구의 인지도에 대해 전체 외국인 중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은 없다’가 31.3%, ‘알고 있으며 이용한 적이 있다’가 7.5%였다.

거주 연수별로 보면 ‘모른다’의 비율은 거주 연수 1년 미만(65.7%) 층에서 가장 높았으며, 거주 연수 10년 미만 층에서는 외국인 상담창구를 알고 있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외국인 상담창구의 인지도 【전체 및 구 내 거주 연수별】



※ ‘외국인 상담창구’란 아다치구청 본청사 남관 3층 지역조정과 다문화공생담당 창구를 뜻한다.

(4) 방재훈련의 인지도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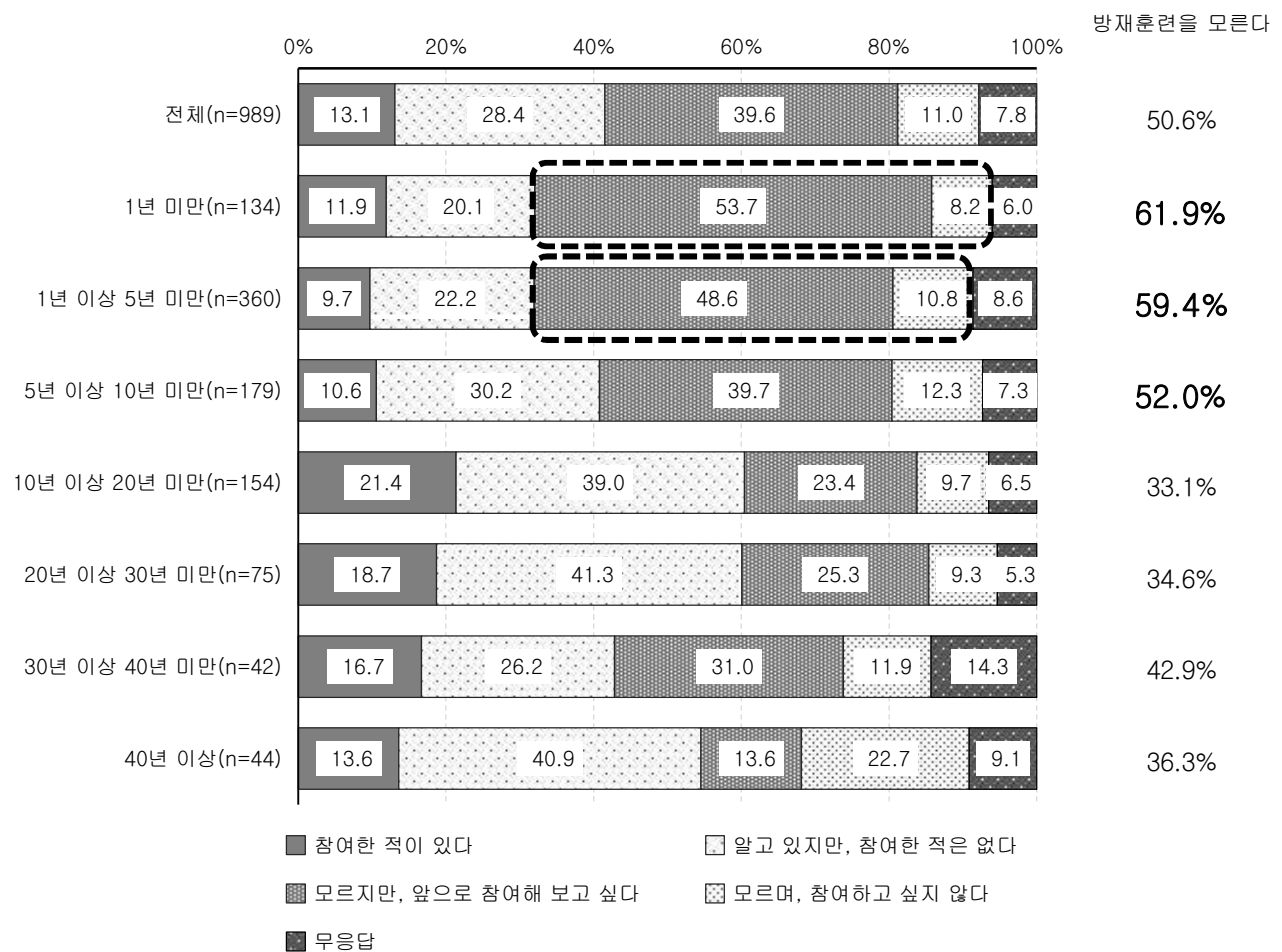
① 방재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이 많았으나, 참여 의욕은 높았다.

② 구 내 거주 연수가 짧은 층일수록 방재훈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방재훈련의 인지도에 대해 전체 외국인 중 ‘모르지만, 앞으로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알고 있지만, 참여한 적은 없다’가 28.4%, ‘참여한 적이 있다’가 13.1%였다.

구 내 거주 연수별로 보면 방재훈련을 ‘모른다’(‘모르지만, 앞으로 참여해 보고 싶다’와 ‘모르며, 참여하고 싶지 않다’의 합계)’라고 응답한 비율은 거주 연수 10년 미만 층에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구 내 거주 연수가 짧은 층일수록 인지도가 낮은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방재훈련의 인지도 【전체 및 구 내 거주 연수별】



(5) 대피소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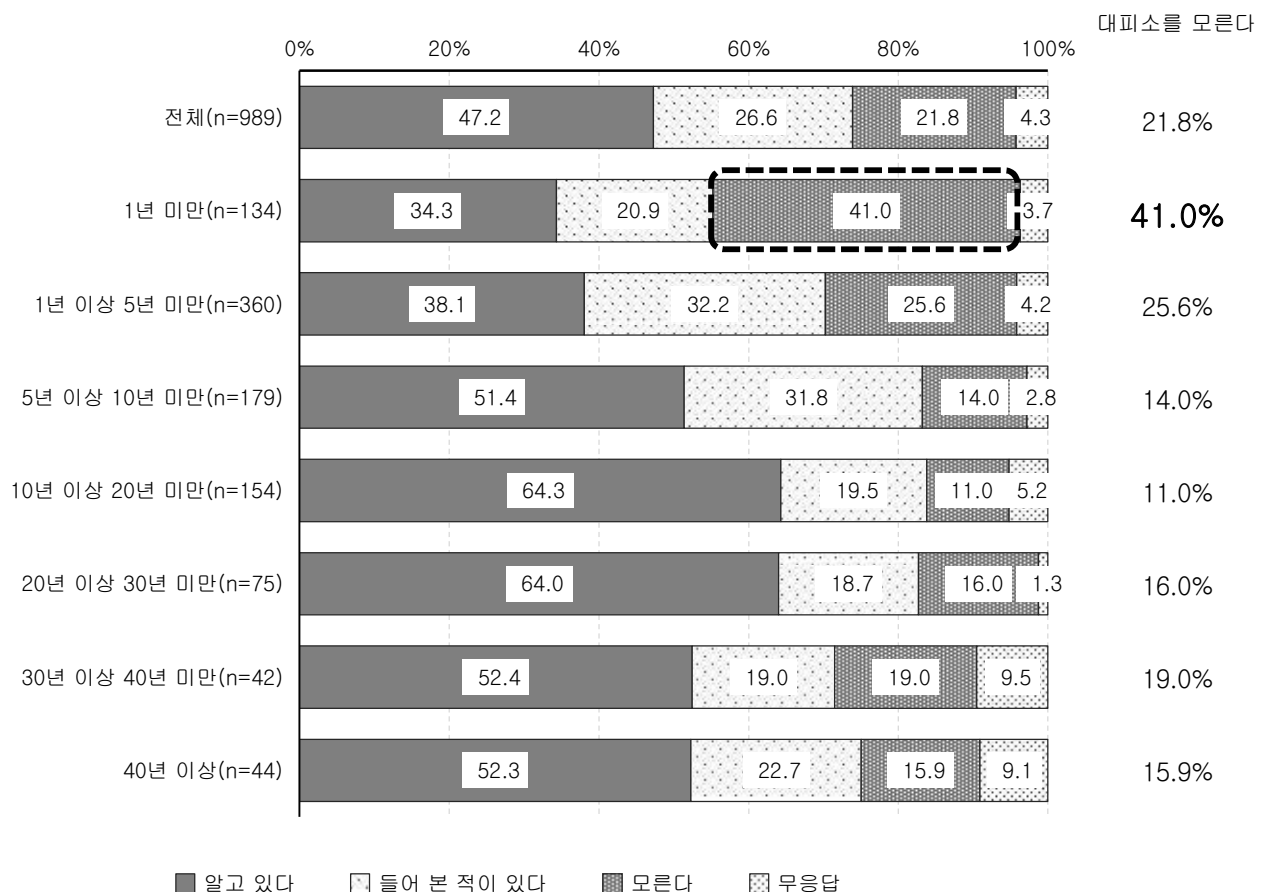
point

- ① 대피소를 ‘모른다’라고 응답한 외국인의 비율이 20%를 넘었다.
- ② 구 내 거주 연수가 짧은 층일수록 대피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며, 특히 거주 연수 1년 미만 층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대피소의 인지도에 대해 전체 외국인 중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들어 본 적이 있다’가 26.6%, ‘모른다’가 21.8%였다.

구 내 거주 연수별로 보면 대피소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거주 연수 5년 이상 층에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거주 연수 1년 미만 층에서 41.0%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구 내 거주 연수가 짧은 층일수록 인지도가 낮은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방재훈련의 인지도 【전체 및 구 내 거주 연수별】



(6) 반상회의 인지도와 가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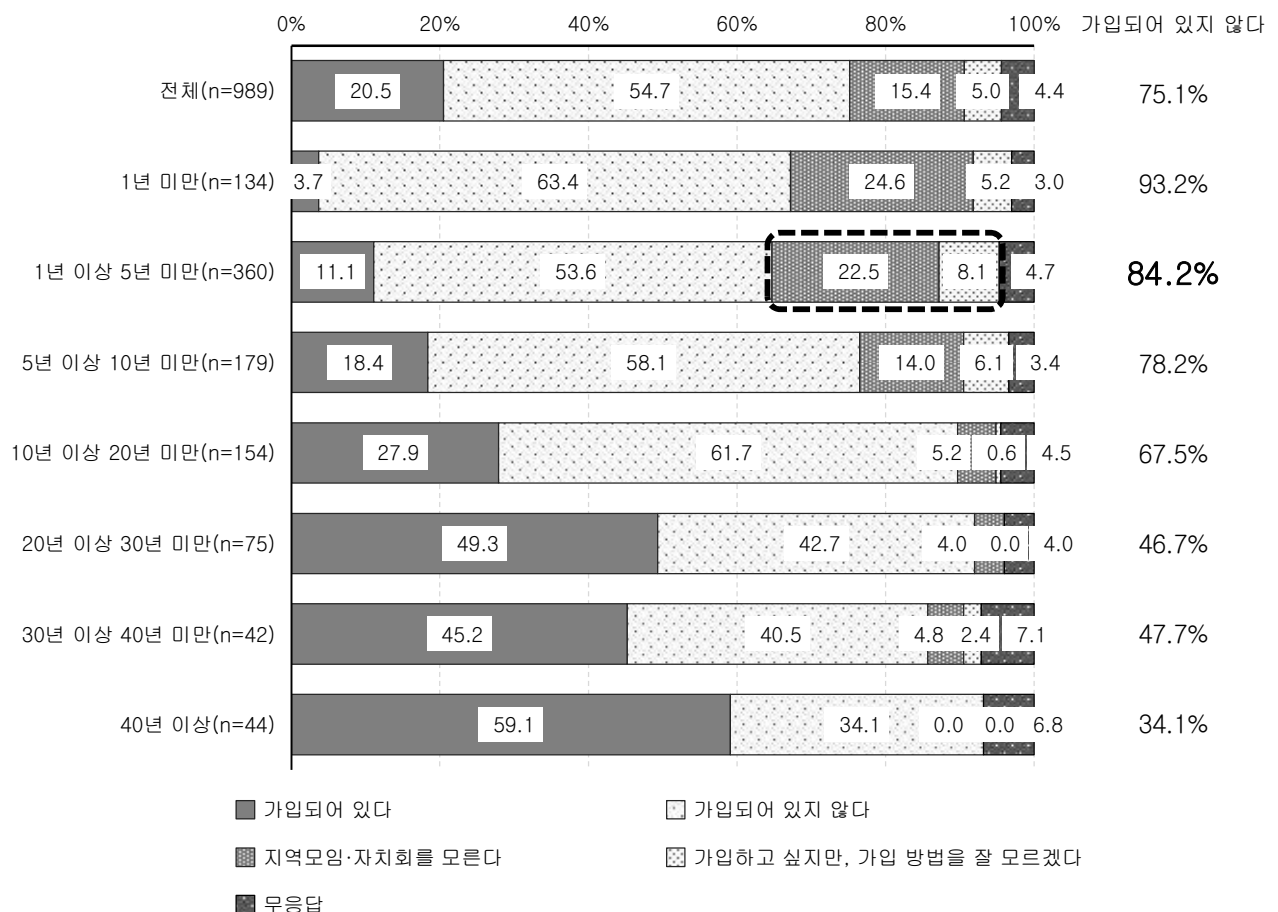
point

- ① 지역모임·자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 ② 구 내 거주 연수가 짧은 층일수록 지역모임·자치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지역모임·자치회 가입 현황에 대해 전체 외국인 중 ‘가입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5%,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4.7%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모임·자치회를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4%로 나타났다.

구 내 거주 연수별로 보면 ‘지역모임·자치회를 모른다’, ‘가입하고 싶지만, 가입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거주 연수 5년 미만 층에서 약 30%로 나타났다.

반상회의 인지도와 가입 여부 【전체 및 구 내 거주 연수별】



(7) 향후 거주 의향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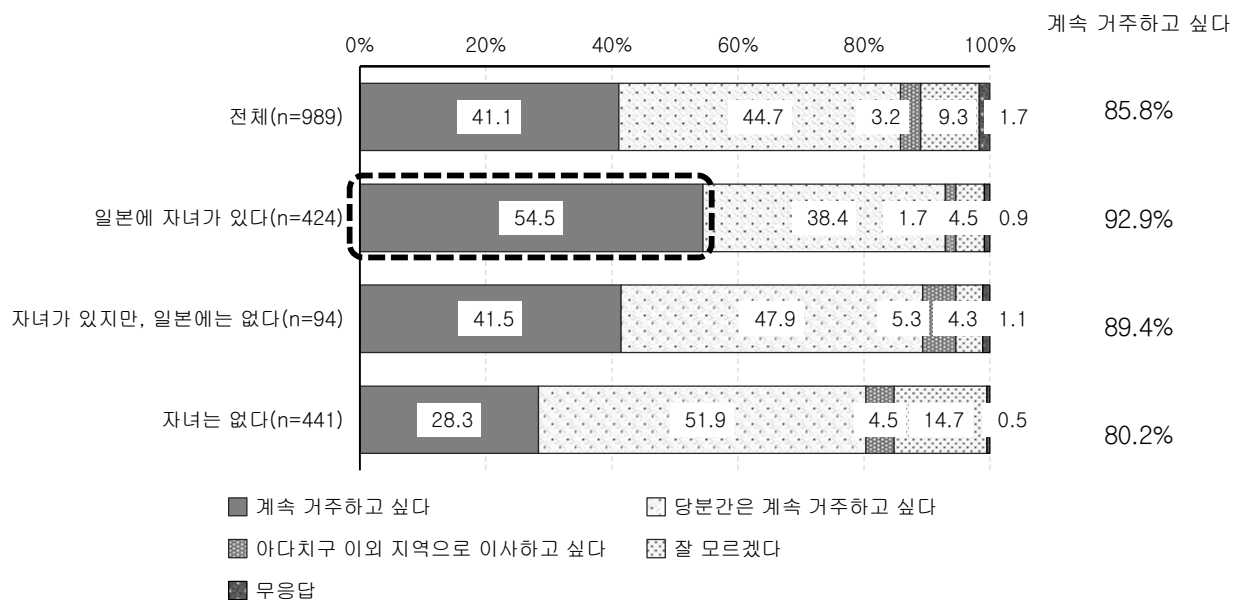
① 80%대 중반이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② 특히 자녀가 있는 층의 정주 의향이 강했다.

향후 거주 의향에 대해 전체 외국인 중 ‘계속 거주하고 싶다’(‘계속 거주하고 싶다’와 ‘당분간은 계속 거주하고 싶다’의 합계)’라고 응답한 비율은 85.8%였다. 한편, ‘아다치구 이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자녀 유무별로 보면 ‘계속 거주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에 자녀가 있는 층(54.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 가구의 정주 의향이 강한 것을 엿볼 수 있었다.

향후 거주 의향 【전체 및 자녀 유무별】



2. 일본인 조사

(1) 외국인 거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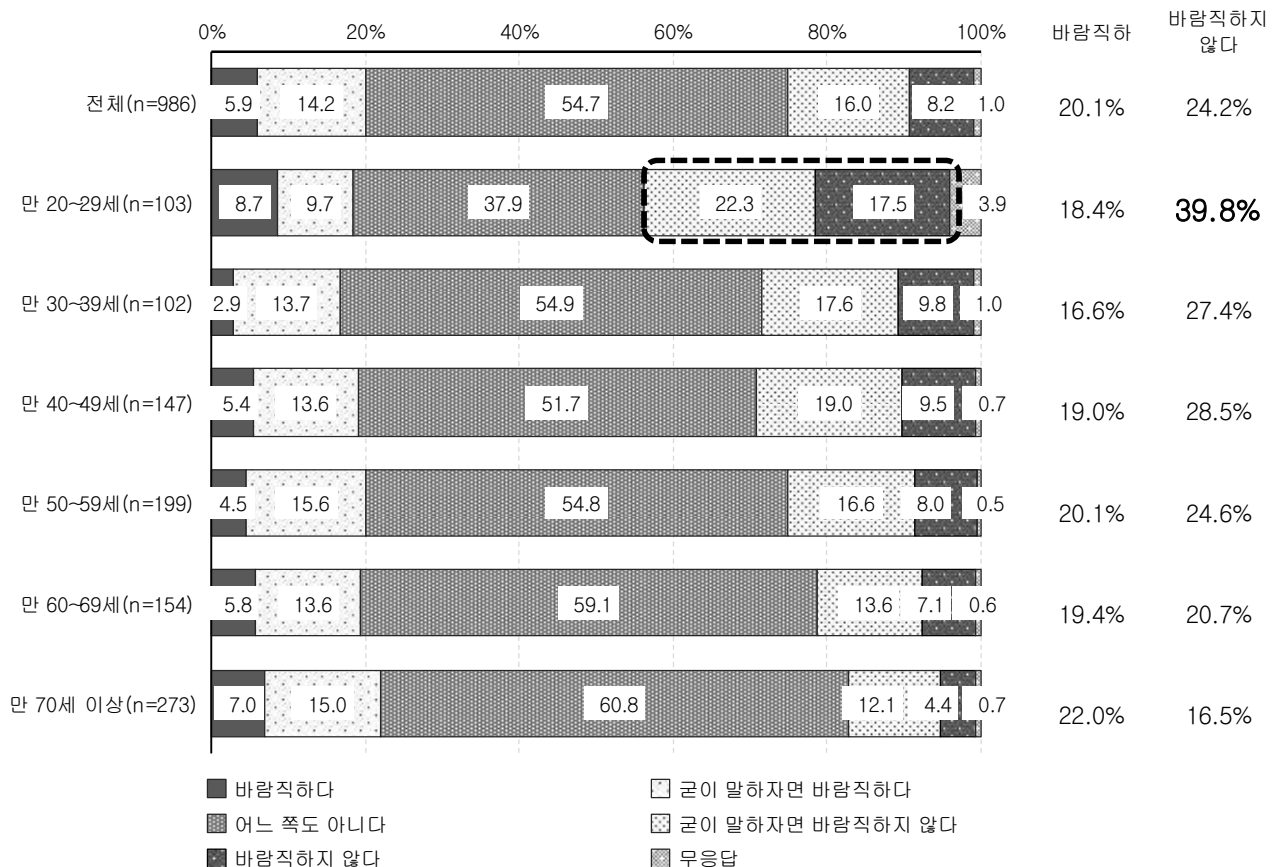
point

- ① 외국인 거주에 대해 20%대 중반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 ② 젊은 세대일수록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외국인 거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전체 일본인 중 ‘바람직하지 않다’(‘바람직하지 않다’와 ‘굳이 말하자면 바람직하지 않다’의 합계)’라고 응답한 비율은 24.2%였다. 한편, ‘바람직하다’(‘바람직하다’와 ‘굳이 말하자면 바람직하다’의 합계)’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나이별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39.8%)에서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만 70세 이상(16.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국인 거주에 대한 인식 【전체 및 나이별】



※ ‘전체’는 전체 응답자의 합계를 뜻한다.

※ 응답 수(n)가 30 미만인 항목은 게재를 생략했다.

(2) 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참여 의향

point

- ① ‘외국인에게 인사하는 등 서로 말을 붙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 ② 젊은 세대일수록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20 대의 약 30%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참여 의향에 대해 전체 일본인 중 ‘외국인에게 인사하는 등 서로 말을 붙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가 23.8%, ‘외국인과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눈다’가 19.6%였다.

나이별로 보면 ‘외국인에게 인사하는 등 서로 말을 붙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만 60 세 이상 층에서 50%를 넘어 높게 나타났다. 또한 40 대에서는 ‘PTA 나 학교의 보호자회 등의 활동(13.6%)’, 만 70 세 이상에서는 ‘지역모임·자치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피훈련이나 청소 등의 지역 활동(28.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나이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대(29.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소극적인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참여 의향 【전체 및 나이별】

	외국인에게 인사하는 등 서로 말을 붙인다	외국인과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외국인과 생활관습이나 규칙에 대해서 서로 상의한다	지역 외국인과 이야기를 나눈다	지역 외국인과 교류회나 이벤트를 기획한다	지역모임·자치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피훈련이나 청소 등의 지역 활동에 지역 외국인과 참여한다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 문화·말·요리 등을 소개하는 강좌에 참여한다	PTA나 학교의 보호자회 등의 활동을 외국인과 함께한다
!체(n=986)	46.2	19.6	17.3	6.6	6.1	17.0	9.5	5.3
만 18~19세(n=5)	60.0	40.0	0.0	60.0	0.0	0.0	0.0	0.0
만 20~29세(n=103)	25.2	11.7	12.6	3.9	5.8	7.8	2.9	2.9
만 30~39세(n=102)	45.1	16.7	16.7	7.8	3.9	7.8	8.8	2.9
만 40~49세(n=147)	43.5	23.1	23.1	9.5	5.4	8.8	9.5	13.6
만 50~59세(n=199)	47.2	20.6	17.6	5.5	8.0	17.1	12.6	6.5
만 60~69세(n=154)	51.9	20.1	14.9	5.2	2.6	16.9	12.3	1.3
만 70세 이상(n=273)	52.0	20.1	17.6	5.9	7.7	28.6	8.4	4.0
	번역·통역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번역·통역 이외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일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한다	구(區)의 다문화 공생 시책을 고안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한다	기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무응답	
!체(n=986)	3.8	2.9	8.7	2.2	2.3	23.8	7.3	
만 18~19세(n=5)	0.0	0.0	40.0	0.0	0.0	0.0	0.0	
만 20~29세(n=103)	2.9	1.9	5.8	0.0	1.0	29.1	15.5	
만 30~39세(n=102)	4.9	1.0	6.9	2.0	1.0	27.5	4.9	
만 40~49세(n=147)	5.4	1.4	9.5	2.0	2.7	25.9	7.5	
만 50~59세(n=199)	6.0	5.5	12.1	3.5	4.5	19.1	8.0	
만 60~69세(n=154)	2.6	3.2	10.4	0.6	1.9	18.2	7.8	
만 70세 이상(n=273)	1.8	2.9	5.9	3.3	1.8	26.4	4.0	

※‘전체’는 전체 응답자의 합계를 뜻한다.

※응답 수(n)가 30 미만인 항목은 게재를 생략했다.

3. 외국인 조사와 일본인 조사의 비교

(1) 방재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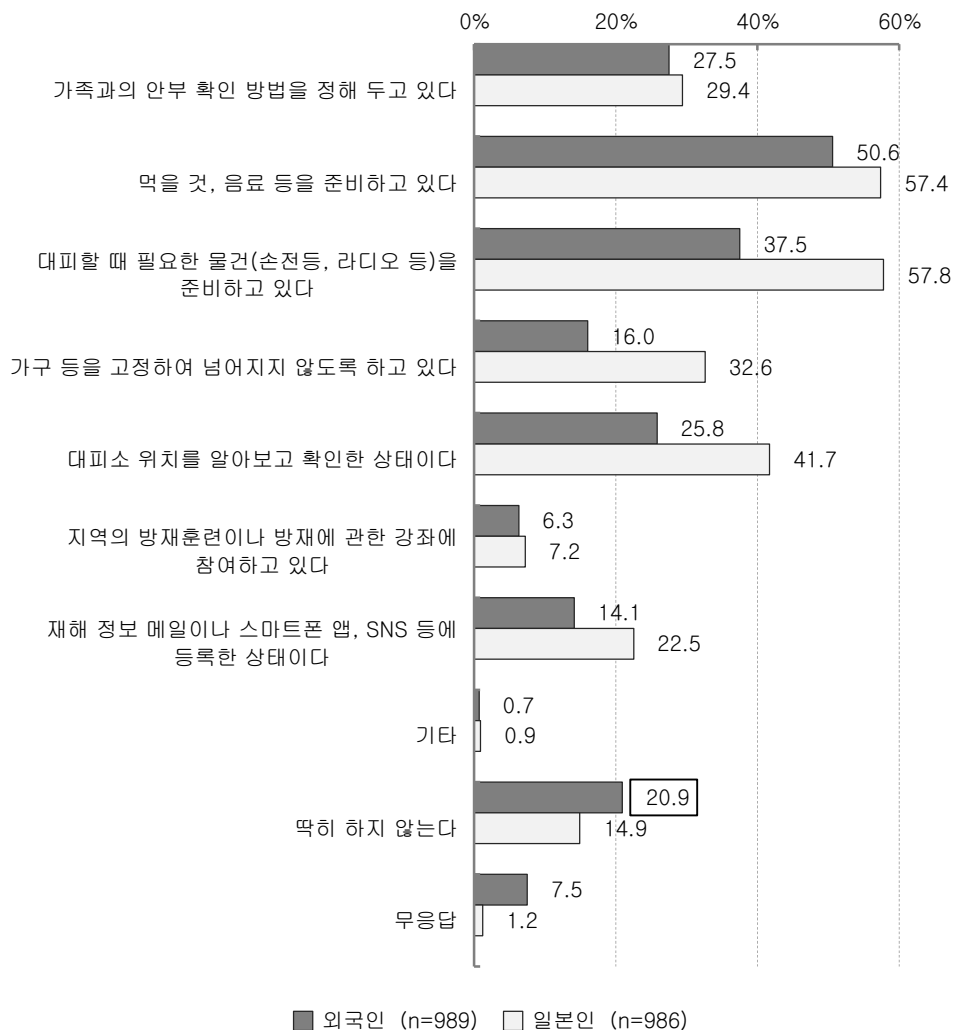
point

- ① 모든 대책 항목에서 일본인의 실시율이 외국인보다 높았으며 특히 ‘대피할 때 필요한 물건’과 ‘대피소 확인’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 ② 외국인의 20%가 재해 대비를 ‘딱히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방재 대비에 대해 외국인과 일본인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일본인의 실시율이 외국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피할 때 필요한 물건(손전등, 라디오 등)을 준비하고 있다(외국인 37.5%, 일본인 57.8%)’와 ‘대피소 위치를 알아보고 확인한 상태이다(외국인 25.8%, 일본인 41.7%)’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딱히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외국인(20.9%)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방재 대비 【응답자별】



(2) 마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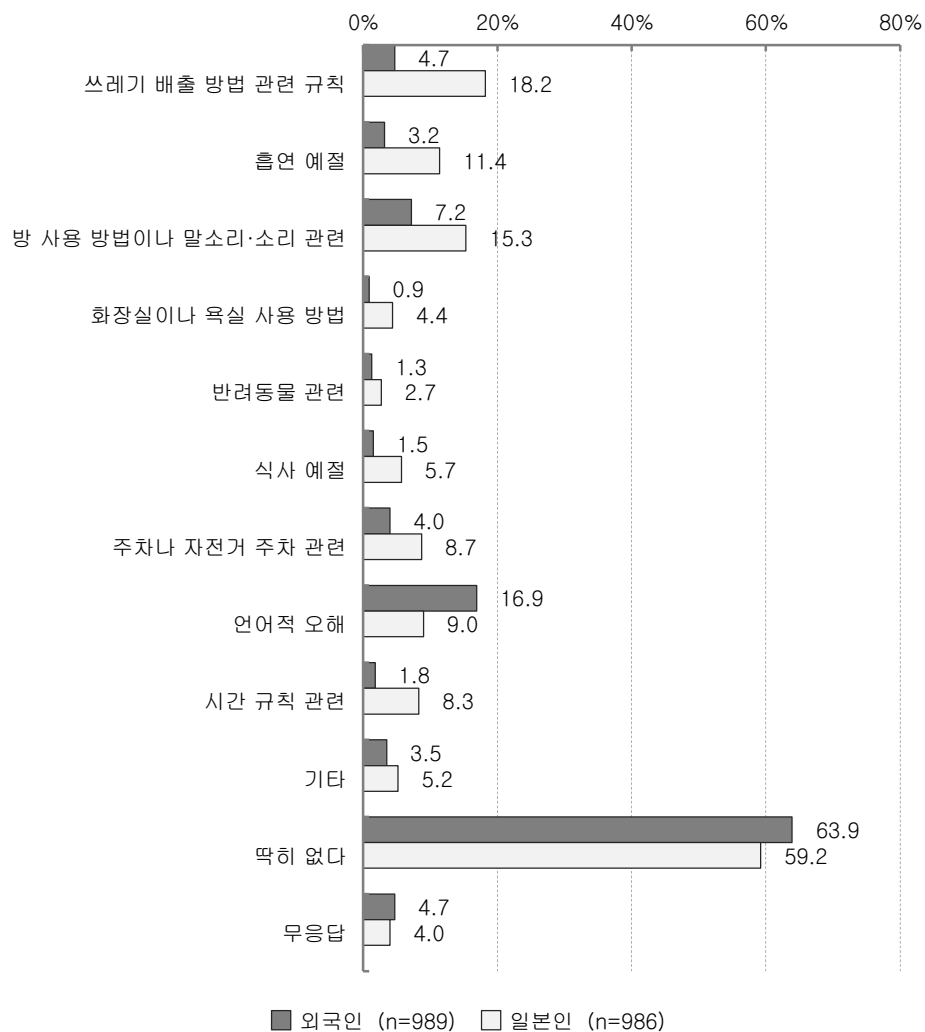
point

- ①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60%가 마찰은 ‘딱히 없다’라고 응답했다.
- ② ‘언어적 오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일본인이 마찰 경험을 더 많이 꼽았다.

일본인(외국인)과의 마찰 경험에 대해 외국인과 일본인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언어적 오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일본인이 마찰 경험을 더 많이 꼽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 배출 방법 관련 규칙(외국인 4.7%, 일본인 18.2%)’과 ‘방 사용 방법이나 말소리·소리 관련(외국인 7.2%, 일본인 15.3%)’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딱히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양측 모두 60% 내외였으나, 마찰에 대한 인식은 일본인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찰 경험 【응답자별】



(3) 지역 사회에서의 공생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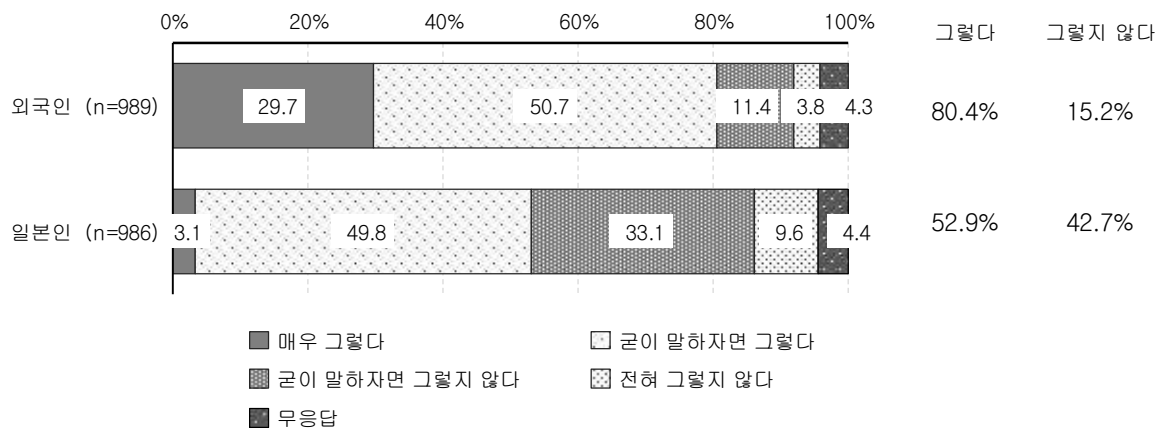
point

외국인은 80%가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응답했지만, 일본인은 약 50%에 그쳤다.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의 합계)’라고 응답한 비율은 외국인이 80.4%였지만, 일본인은 52.9%에 그쳤다.

또한 ‘그렇지 않다(‘굳이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합계)’라고 응답한 비율은 외국인이 15.2%인 데 비해 일본인은 42.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 사회에서의 공생 의식 【응답자별】



아다치구 다문화 공생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구민 의식 설문조사 보고서(개요판)

2026 년 6 월

아다치구

도쿄도 아다치구 주오혼초 1-17-1

전화: 03-3880-5177
